미술

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머리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되자면 미술을 알아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선군시대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되자면 미술학습도 하여 풍부한 미학적정서를 가져야 한다.

미학적정서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키워지게 된다. 여기서 미술학습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술학습은 우선 사람들에게 관찰력과 표현력을 키워주어 미술을 창조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우리 주위에는 서로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가진 물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들은 다 제나름의 형태와 색갈, 질감을 가지고있다. 미술학습에서는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품, 공예품으로 창조하는 원리와 방법을 배운다.

결국 미술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눈으로 볼줄 아는 관찰력을 키우게 되고 그것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표현력을 자래우게 된다.

미술학습에서는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창조된 미술작품을 감상할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준다.

미술작품은 뜻깊은 내용을 담아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한다. 미술학습에서는 미술가에 의하여 창조된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다시말하여 작품을 보는 법을 배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미술학습을 통하여 미술작품에 담겨진 주제와 사상, 형상, 인식교양적의의 등을 추려낼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처럼 미술학습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미학적정서를 키워주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절대로 미술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미술학습을 성실히 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야 한다.

회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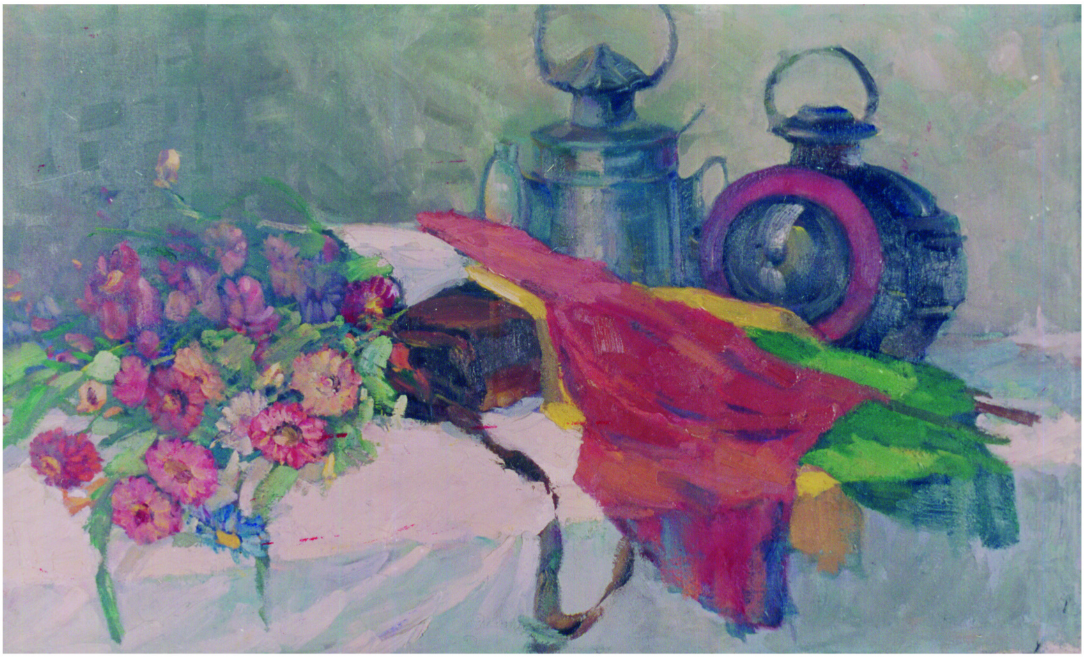
정 물 화

정물화는 생활적인 내용이 잘 안겨오게 구성하여놓고 그려야 한다.

그릴 때에는 구도적중심이 뚜렷하고 형태와 색갈, 질적특성을 잘 표현하여야 하며 중심을 강조하고 부차적인 부분을 밀어주면서 표현의도가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야영준비 (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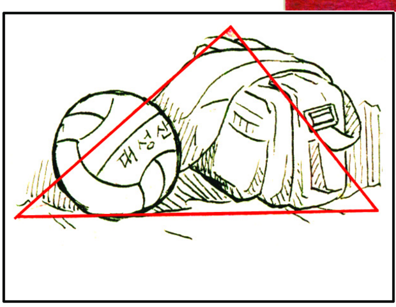


무사고로 돌아오다(유화 1961년) 림호길 작

우의 작품에서는 방금 먼길에서 무사고로 돌아와 축하의 꽃다발을 받은 기관사의 기쁨이 느껴진다.

경기를 앞두고(수채화)







풍만한 남새수확(부분 조선화 1959년) 최도렬 작

조선화 《풍만한 남새수확》은 몰골기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림은 피는 종이에 몇번의 붓질로 물체의 모양을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조선화 《부엌정물》은 세화기법으로 섬세하게 그려 묘사대상을 실물과 같이 생동하게 나타냈다.

부엌정물(조선화 1968년) 강정님 작





풍만한 남새(유화 1987년) 유병석 작

우의 유화작품에서는 보색관계를 고려하여 색놓이를 잘함으로써 중심을 강조하고 신선한 느낌이 더 잘 나타나게 하였다.

정물화를 그릴 때 구도의 안정감을 잘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유화란 기름에 개여 만든 불투명색감으로 그린 그림이다.

유화를 그리는 순차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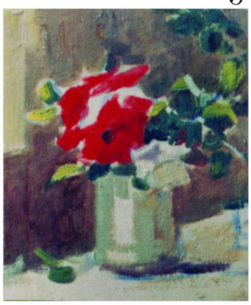
1



2



3



4



화 조 화

화조화는 조선화를 비롯하여 동양화에만 고유한 꽃과 새를 위주로 그리는 그림이다.

화조화의 중요한 묘사대상의 하나인 꽃을 조선화의 구륵기법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목란꽃(조선화)

조선화의 다양한 기법

○ **구륵기법**

륜곽선으로 연하거나 진하게 된 색을 감싸주면서 대상의 형태를 세부까지 그려내는 기법

○ **우림기법**

대상의 모습에 가까운 연한 바탕색을 깔아주고 반복하여 색을 입혀주면서 화면을 밝게 형상하는 기법

○ **몰골기법**

질음새의 변화와 물기조절로 립체미를 돋구며 붓과 종이의 성질을 리용하여 단붓에 그려내는 기법

구륵기법으로 그리는 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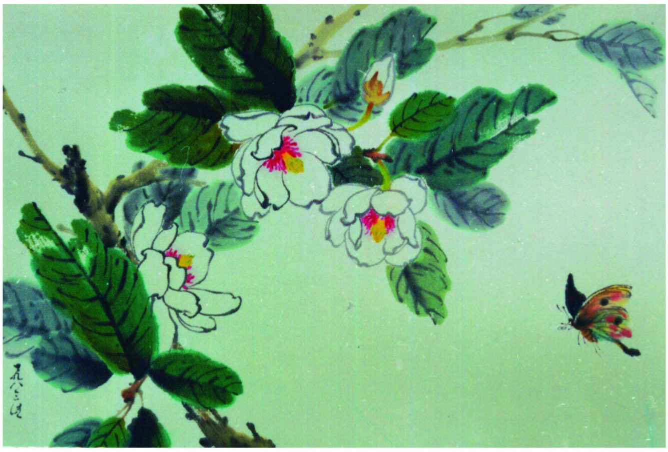
1



2



김일성화(조선화 1983년) 김금옥 작



목란(조선화 1983년) 리맥림 작

조선화 《**김일성화**》는 구륵기법으로, 《목란》은 몰골기법으로 그렸다.

두 그림에서 그리는 방법상 차이가 무엇인가?

5월의 농촌(조선화 1956년)
정종여 작



3



4













화조화에서는 묘사대상이 실제적인 자연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게 그린다. 그리고 화면에서 기본묘사대상만 그리고 배경은 대체로 그리지 않는다.

풍 경 화

풍경을 그리는데서는 자연을 정서적으로 느끼는 마음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여주려는 내용이 잘 안겨오게 구도를 잡고 거리에 따르는 형태와 색의 변화에 주의를 돌리며 계절과 시간에 따르는 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탑이 보이는 풍경(수채화)



10월의 남대천(유화 1974년) 한남룡 작

우의 작품에서는 가을날의 남대천풍경을 섬세한 붓질로 정답게 그렸다. 근경으로부터 원경에 따르는 풍만한 색채적변화로 무한한 공간감을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거리풍경(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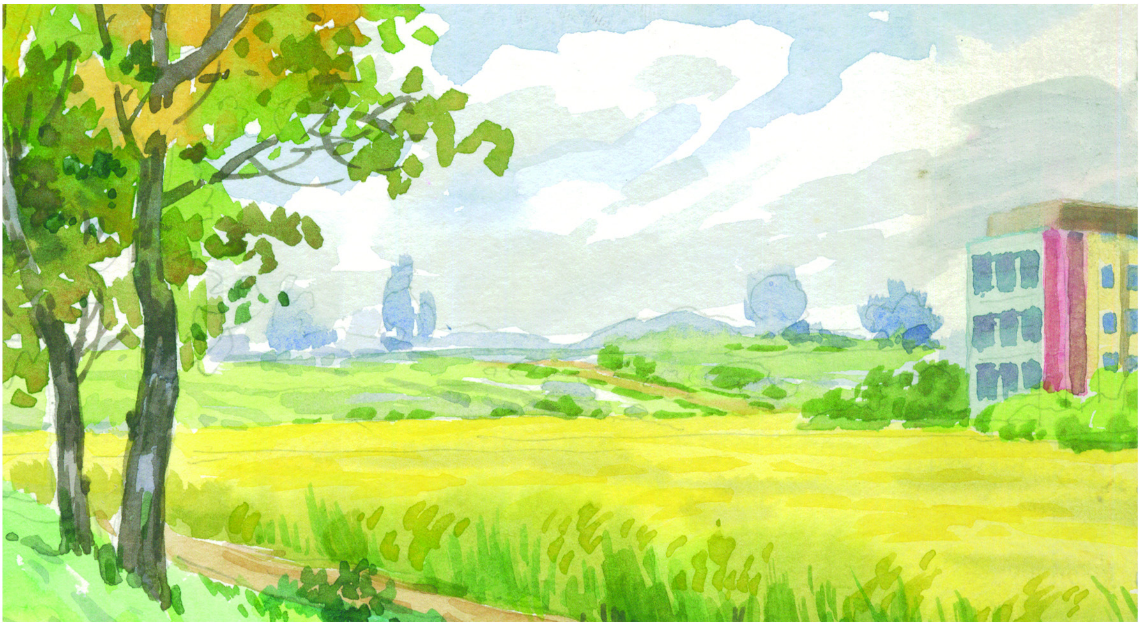




오산덕의 샘물터풍경(조선화)

이 작품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봄날의 사적지풍경을 계절과 거리에 따르는 표현으로 생동하게 묘사하였다.

농장벌(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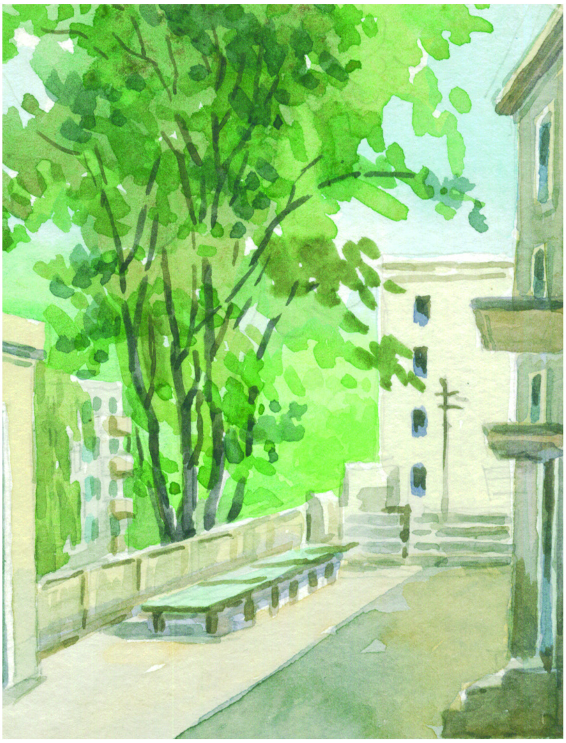
백송혁명사적지(유화 1983년) 리인 작

분계선마을의 옛 집터(조선화 1985년)

정창모 작



학교뒤풍경(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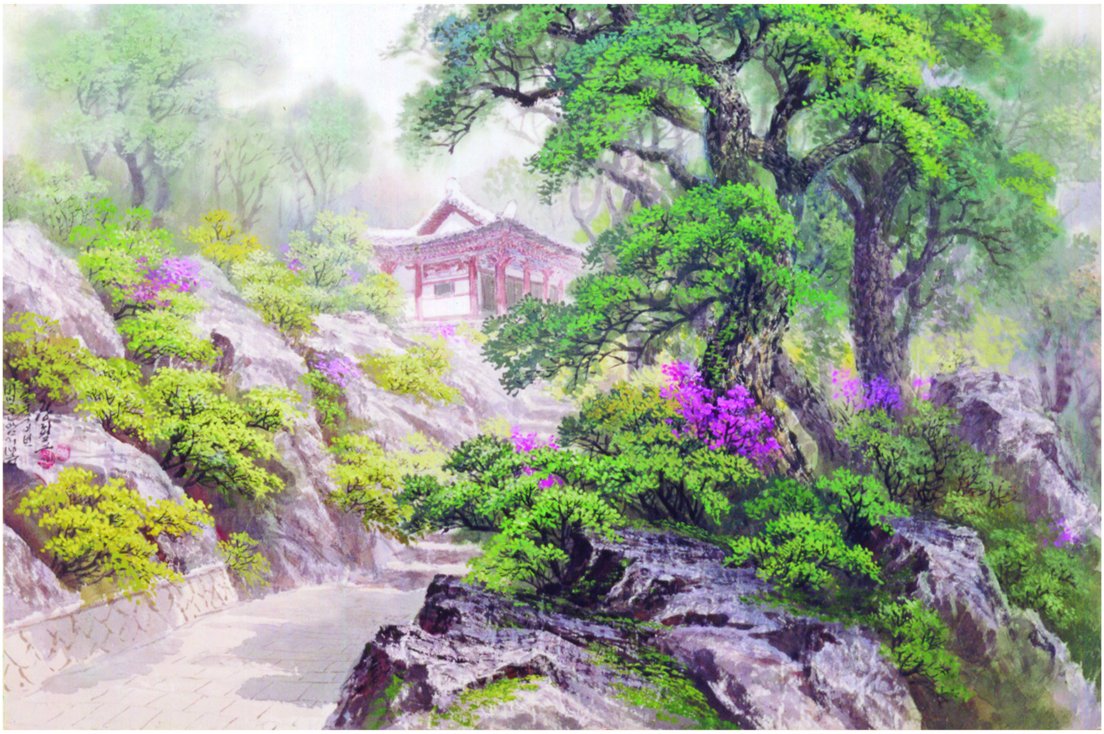




당창건기념탑(수채화)



파도(유화 1989년) 최청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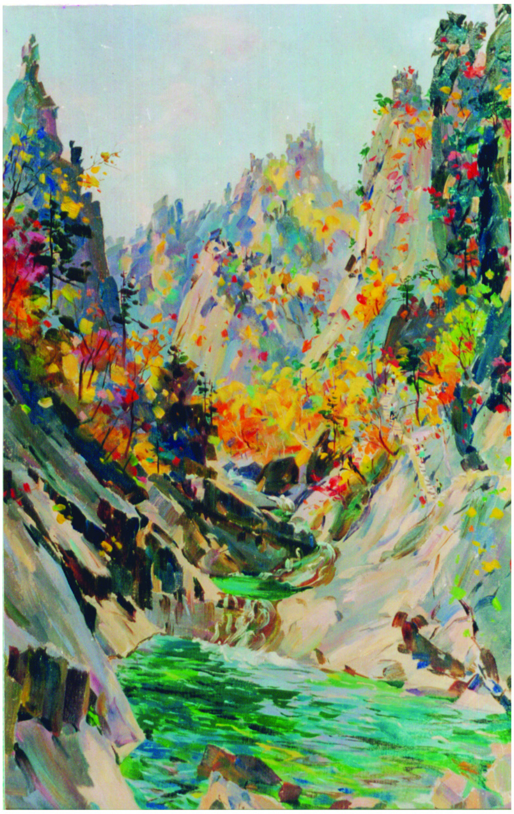
룡악산 법문암(조선화 1992년) 장희로 작

풍경화에서 계절과 시간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의 해살(유화 1987년) 리원철 작



금강산 련주담(유화 1984년) 한상익 작



인 물 화

자기의 얼굴모습을 그린 그림을 **자화상**이라고 한다.

자화상에서는 얼굴의 륜곽과 눈, 코, 입, 귀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여야 하며 품고 있는 감정까지도 제대로 나타내야 한다.

자화상(수채화)



인물소묘에서는 명암의 변화를 잘 보아야 립체감이 나게 된다.

인물습작(조선화)





자화상(소묘)

인물화의 구분

인물화는 크게 초상화와 주제화로 나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개성적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린 그림을 **초상화**라고 한다.

초상화는 단신상과 군상으로 나누며 묘사되는 범위에 따라 흉상, 반신상, 전신상으로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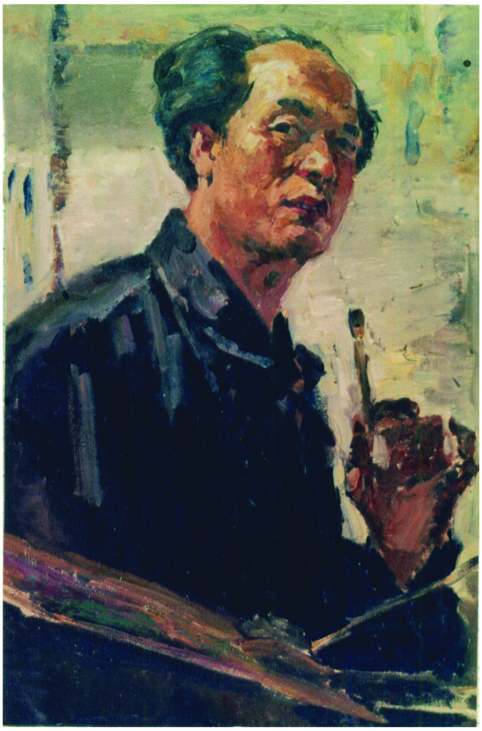
사람들의 생활을 그린 그림을 **주제화**라고 한다. 주제화에서는 여러명의 사람들을 등장시킬수도 있고 단 한명만으로도 그릴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유격투쟁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여 사형당하는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싸운 조옥희영웅의 투쟁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조옥희영웅(유화 1997년) 김정중 작

자화상(유화 1965년) 정관철 작



자화상(조선화)





장군님의 전사 류경수선생님(부분 유화 1997년) 서기운 작

자화상(수채화)



습작(유화 1994년) 백학훈 작





승리한 후에(조선화 1983년) 박경호 작

이 작품에서는 몰골기법으로 승리한 후의 희열에 넘친 항일혁명투사의 성격을 힘있는 필치로 박력있게 형상하였다.

조선화 구륵세화기법에 의한 인물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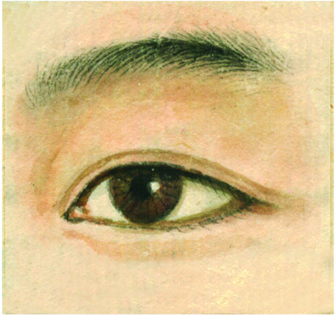
구륵세화기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리는 순차를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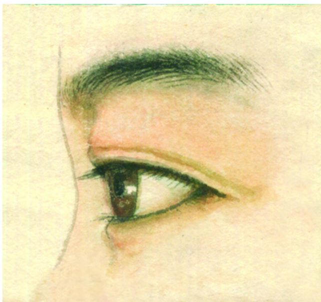
○ 초본을 연필로 그린다.



○ 옮겨뜨고 붓선으로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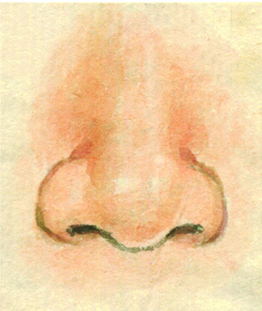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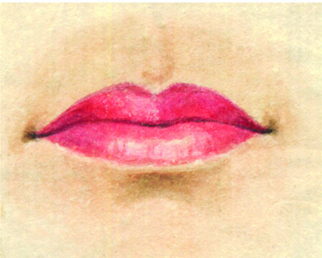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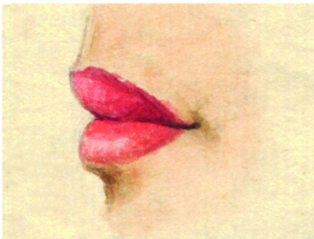


인물습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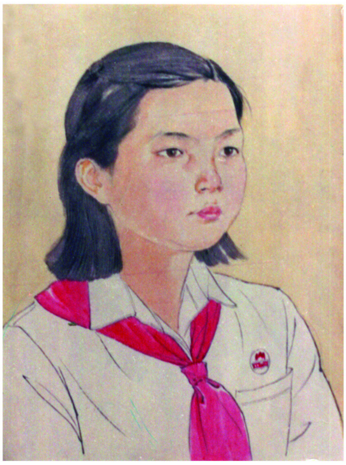




○ 바탕색을 연하게 칠한다.



○ 덧칠하면서 세부를 그린다.



○ 완성한다.



주제화

주제화에서는 생활화와 상상화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태양절아침(조선화)

창작의 일반적과정

구 상 → 초 안 → 밑그림 및 습작 → 완 성

구 상: 무엇을 그리겠다는것이 결정되면 그것을 연필로 간단히 속사하면서 구상을 무르익힌다.

초 안: 인물, 소도구, 환경, 색채에 이르기까지 잘 생각하여 초안을 그린다.

밑그림 및 습작: 초안에 기초하여 실제크기의 밑그림을 그린 다음 습작을 하면서 구상을 더욱 무르익힌다.

완 성: 밑그림을 본 화면에 옮기고 습작을 보면서 색칠하여 완성한다.



학교꾸리기(수채화)

우리 아버지(조선화 1985년) 김정태 작



등대섬의 개학날(조선화 1985년) 김응택 작





사향가(부분 조선화 1985년) 김영호 작

우의 작품에서는 달 밝은 숙영지의 밤에 꿈결에도 못 잊을 조국산천을 그리며 노래부르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모습을 서정깊게 보여주고있다.

아래의 작품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불 뿜는 원쑤의 화구를 막는 리수복영웅의 투쟁모습을 격조높이 형상하고있다.

조국을 위하여(유화 1958년) 홍종원 작





선전대활동(조선화)



휘날리는 공화국기발
(조선화 1985년) 리종길 작

돌격(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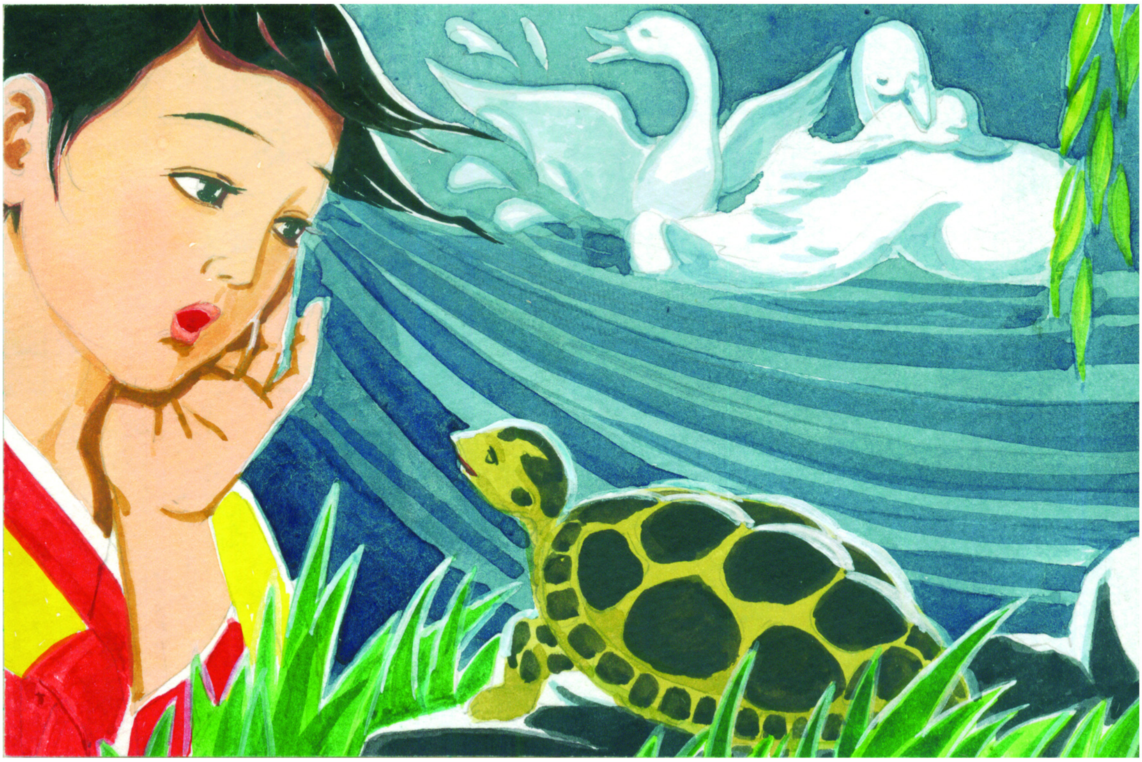


아버지의 후회(유화 1958년) 림병삼 작

우의 작품에서 화가는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의 정당성을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롱구경기(수채화)





진주늪의 처녀시인(수채화)

별나라의 도시에서(수채화)



학교와 가정 등 주변생활에 대하여 무심히 대하지 말고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고 똑똑히 기억해두는 버릇을 붙여야 주제화를 잘 그릴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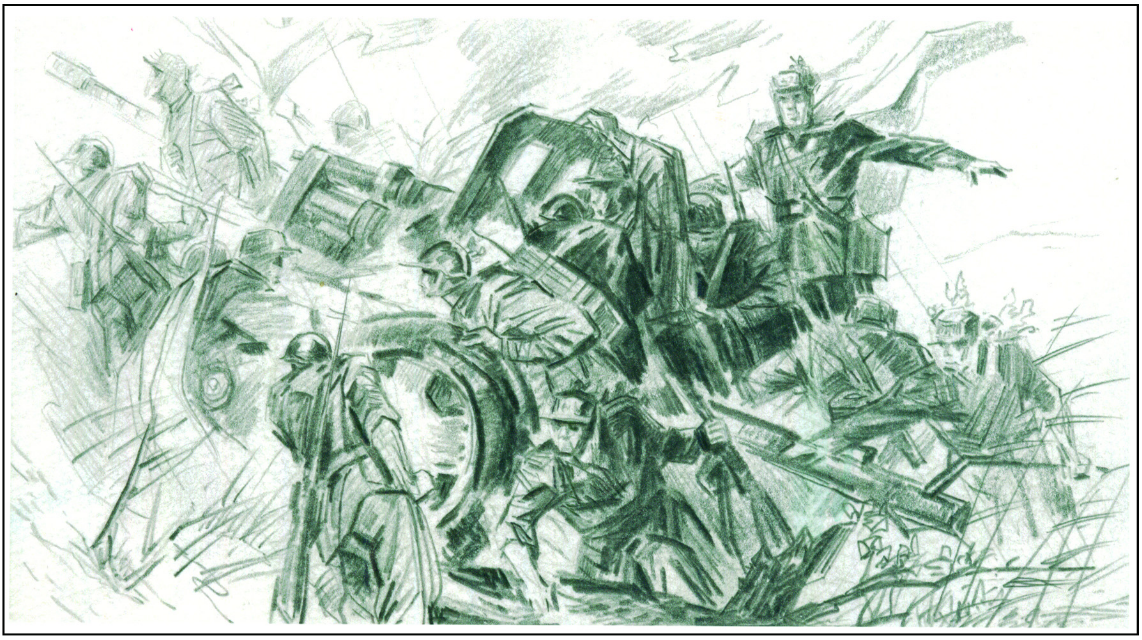
명작창작과정에 대한 지식



직사포를 고지에로(조선화 1997년) 송재철 작

화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려 미제원쑤놈들을 통쾌하게 족친 인민군전사들의 투쟁내용을 가지고 여러 단계의 초안을 거쳐 작품구성을 무르익히고 수많은 습작을 통해 형상을 완성시켰다.

작품초안





①



②



③

④



습작품들

① 전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② 포판을 미는 전사

③ 지휘관의 손

④ 포바퀴를 미는 전사

조각

부 각

부각은 평면우에 형태를 도드라지게 표현하므로 회화와 조각의 특성을 다 갖추고있다고 볼수 있다.

부각에서 평면상에 대상의 량감, 공간감이 잘 나타나게 새기자면 배경으로부터 부각면의 높이, 칼의 선택, 새김방법에 따르는 효과에 대하여 잘 생각하여야 한다.



비행사아저씨

부각의 순차와 방법

① 대상의 형태를 그린다.



② 나무판에 형태를 옮긴다.



③ 배경을 파낸다.





꽃분이



충일이

《꽃분이》와 《충일이》는 눈, 코, 입, 귀, 머리카락 등 세부묘사를 잘함으로써 성격을 잘 표현하였다.

④ 형태를 큰 면으로 판다.



⑤ 세부묘사하여 완성한다.



나무부각의 재료로는 피나무, 고양나무, 배나무, 박달나무 등 결이 없고 일정한 굳기를 가진 나무가 좋다.

부각에서 빛관계는 형태를 립체적으로 묘사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빛은 측면에서 비치게 하는것이 좋다.

돌조각에 대한 지식

돌은 중요한 조각재료의 하나이다.

돌조각에 쓰이는 재료에는 대리석, 화강석 등 여러가지가 있다.

돌조각에서는 돌의 생김새와 결, 색갈, 질감을 고려하여 형태를 구성하고 조심스럽게 쪼아나가야 한다.

돌조각을 잘하려면 만드는 순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대리석은 알갱이가 보드랍고 윤기가 나므로 부드럽고 정결한 효과를 나타낸다.

활석, 부석, 인조석은 재료가 매우 무르기때문에 학생들이 돌조각을 하는데 널리 쓸수 있다.



방과후(대리석 1978년) 류하률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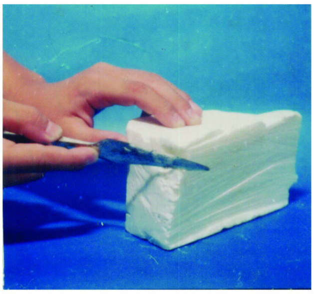
돌조각의 순차와 방법



돌소재



대상의 형태를 속사한다.



밑면을 다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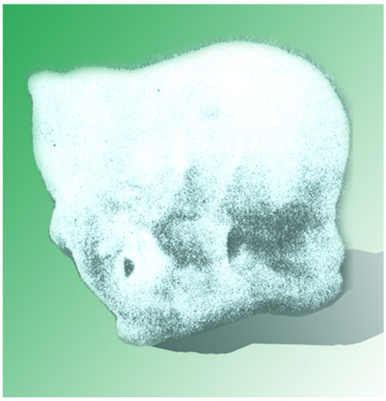
네면에 형태를 그린다.



축구경기(인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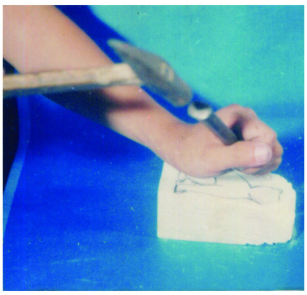


무관상(화강석 공민왕무덤조각)



코끼리(삼은석)

화강석은 굳기때문에 비바람과 태양열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화강석을 야외에 세우는 조각재료로 많이 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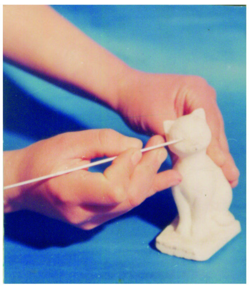
불필요한 부분을 까낸다.



형태선을 다시 그리고 까낸다.



거친 부분을 줄칼로 다듬는다.



세부를 새겨 완성한다.

색 판 화

색판화는 색갈별로 판을 새기고 여러번 찍어야 하므로 밑그림을 잘 정리하여 색수를 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색판화에서는 색채효과를 잘 타산하여 판수를 될수록 적게 하여야 선명하고 간결한 판화적효과를 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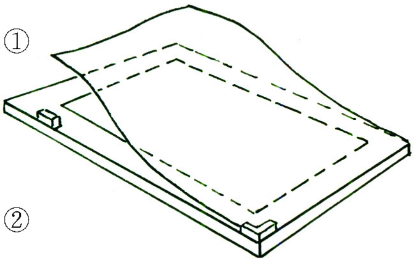
백두산해돋이 (색판화)

매 판을 찍을 때마다 판화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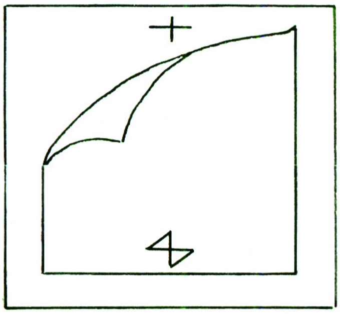
① 옆구리걸턱과 귀걸턱에 종이를 당겨맞추고 찍으면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찍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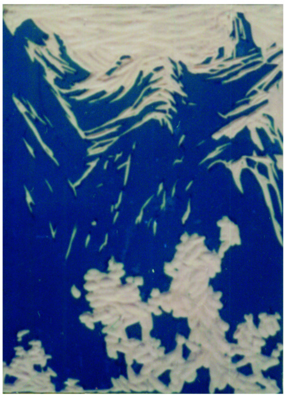
② 판목에 걸턱을 만들지 않고 맞춤표식을 새겨 여기에 종이를 맞추어 찍기도 한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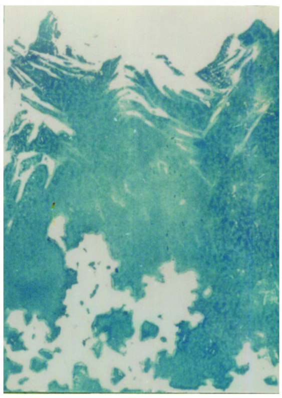


②





첫째 판목



첫째 판찍기

대동문이 보이는 풍경(색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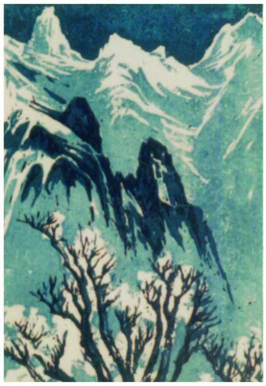
둘째 판목



둘째 판찍기



마지막판목(주판)



완성작품



청년분조장(나무판화 1992년) 박성길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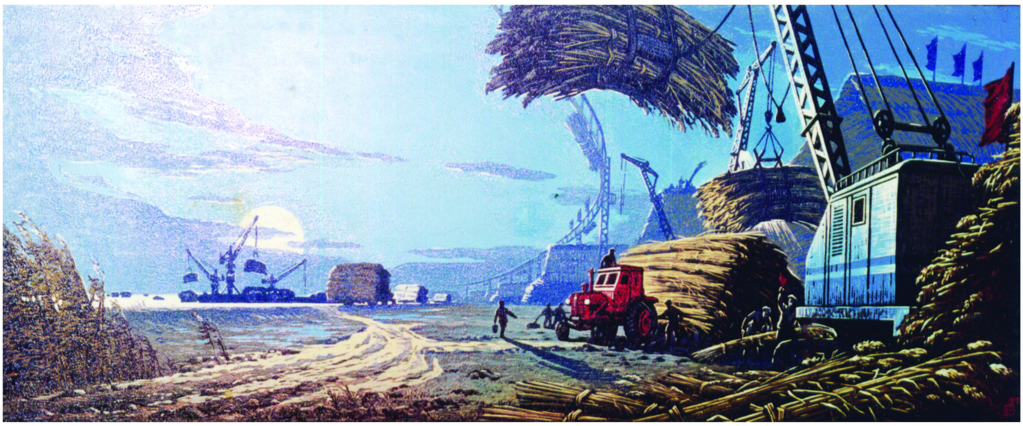


선물송아지
(수인판화 1975년) 김철강 작

판화에서 여러가지 표현방법의 적용

《비단섬의 밤》에서는 갈풍년을 이룩하여 들끓는 작업장의 밤풍경을 섬세하고 예리한 칼자욱과 단순한 색, 명료한 대조로 무한한 공간이 느껴지게 표현하였다.

비단섬의 밤(1992년) 배경운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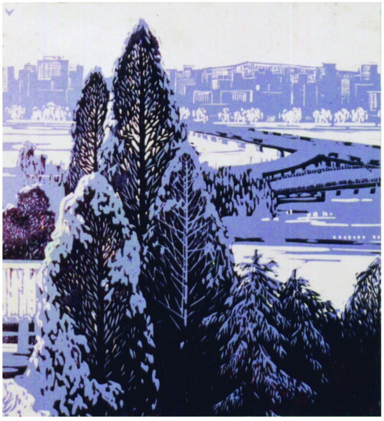
방과후

호수가(부분 1987년) 김용 작



《호수가》에서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을 둥근 칼의 자욱으로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첫눈(부분 1992년) 박영길 작



《첫눈》에서는 주판을 강한 색으로 찍어 뚜렷한 대조를 주면서 겨울의 분위기와 원근감을 잘 표현하였다.

나들이(1955년) 배운성 작



《나들이》는 한판으로 검은색을 찍고 붓으로 연하게 색칠하였다.

선 전 화

선전화는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선동성과 호소성이 강한 선전화를 그리려면 주제를 잘 잡고 주제에 맞게 그림과 글씨체를 정하여야 하며 색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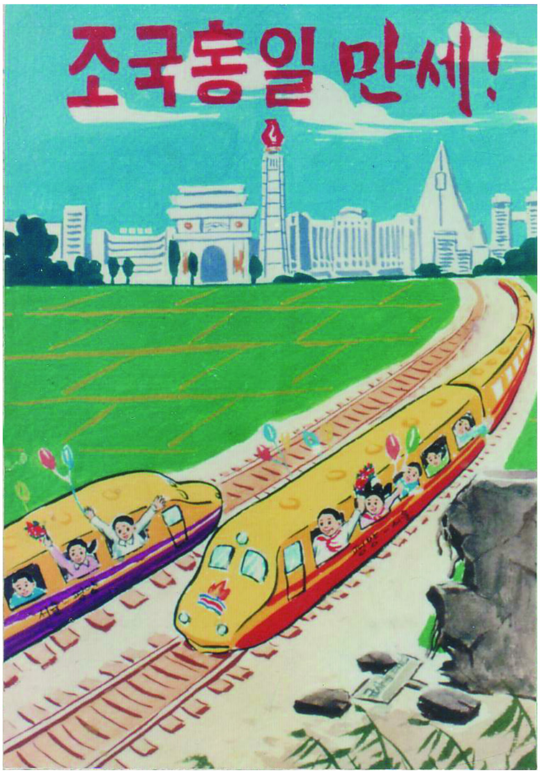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1997년) 동하도, 김동철 작





학교와 가정들에서 더 많은 토끼를 기르자!(1980년) 안정식 작

조국통일 만세!



미래의 주인공이 되자요!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자!(1996년) 김학림 작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자!
(1996년) 리홍철, 고영철 작



선전화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기법

선전화에서는 색칠하는 방법밖에도 여러가지 기법들이 적용된다.

①



화면우에 본을 놓고 쇠그물로 색을 뿌려 표현한다. 분무기로도 한다.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1962년) 류환기 작



②



물면에 유성색감을 떨구고 물을 흔든 다음 종이를 물면에 대고 색을 묻혀낸다.

③



일정한 물건에 색감을 묻혀 화면에 찍어낸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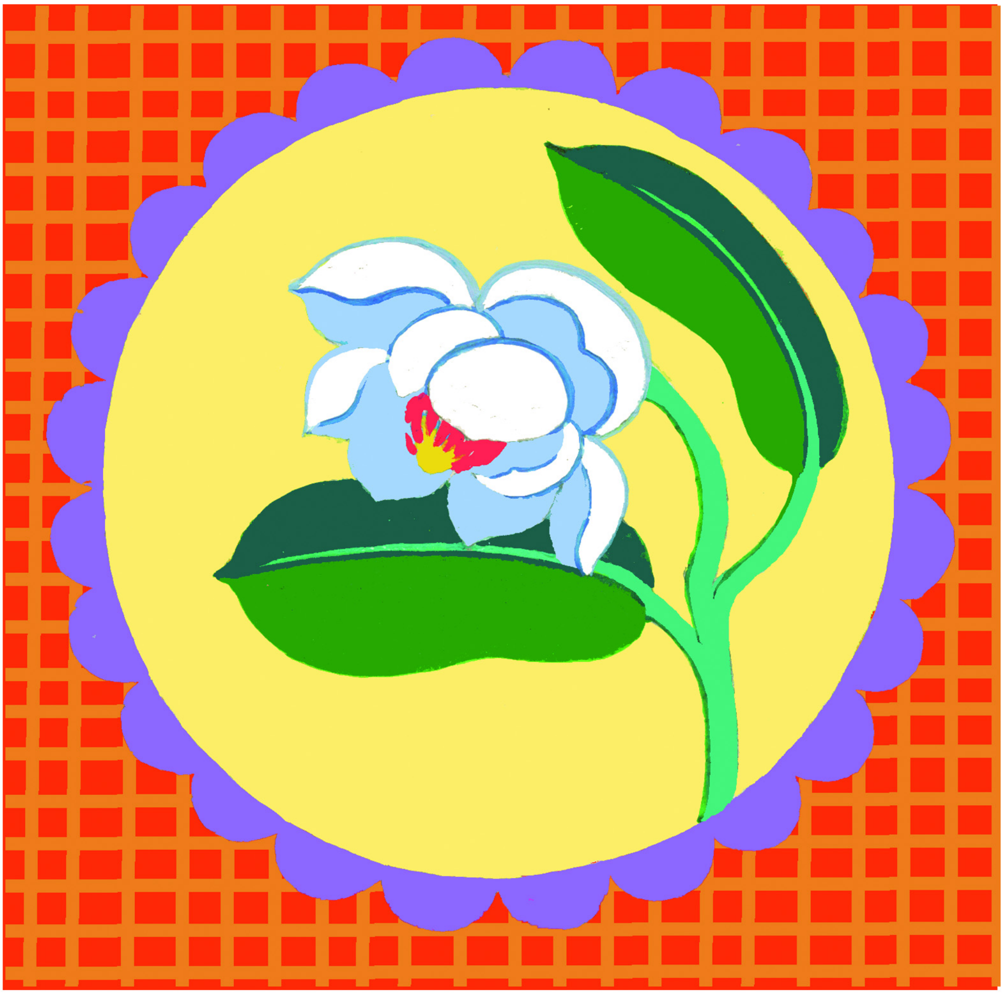
사진이나 출판물의 부분 또는 다른 자료를 배합하여 형상한다.

도　　안

무늬도안

무늬는 인간생활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생발전하여온 미술의 한 분야로서 생활환경, 생산환경, 일용필수품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널리 쓰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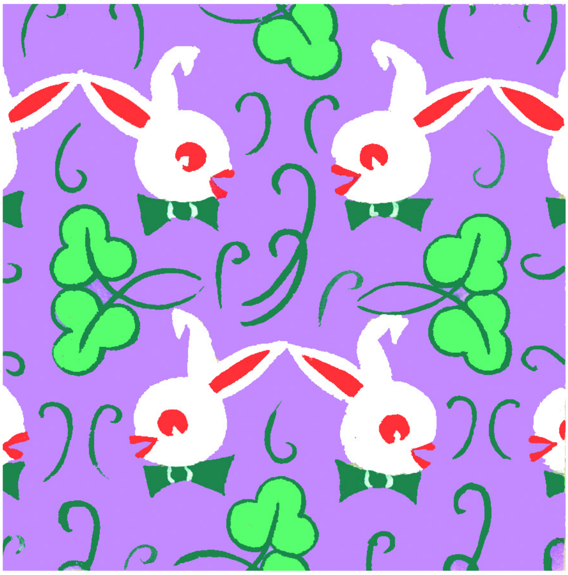
무늬도안에서는 구성의 일반원리를 잘 적용하여 소재를 도안화하고 장식대상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의 무늬를 만들어야 한다.



홑무늬

두편련속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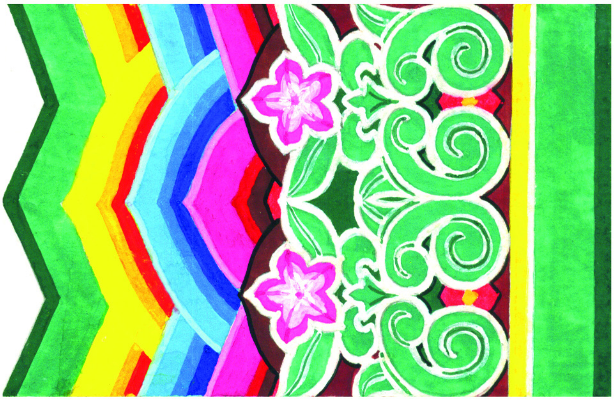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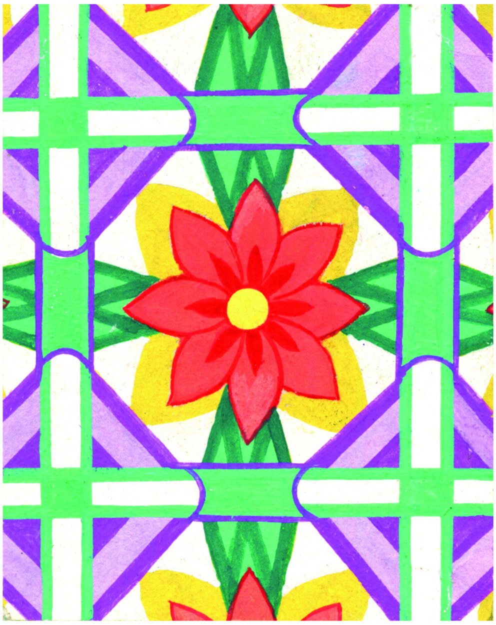


네편련속무늬

민족적정서와 향기가 풍기는 우리의 단청무늬들



민족적전통을 계승한 현대단청



단청무늬



대동문추녀밑단청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공예나 건축 등 조형예술에서 장식수법을 많이 써왔다.

력대무늬들을 살펴보면 소재를 그대로 보고 그려서 표현한것이 아니라 선이나 색으로 도안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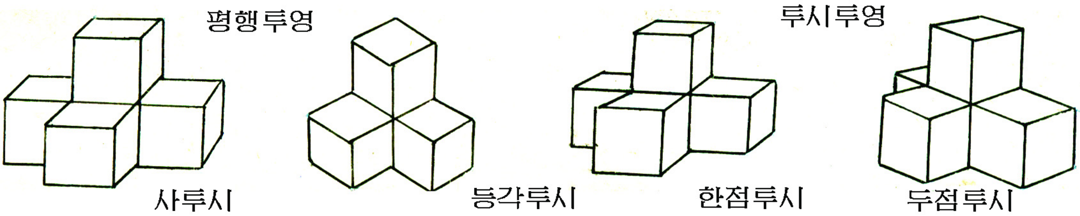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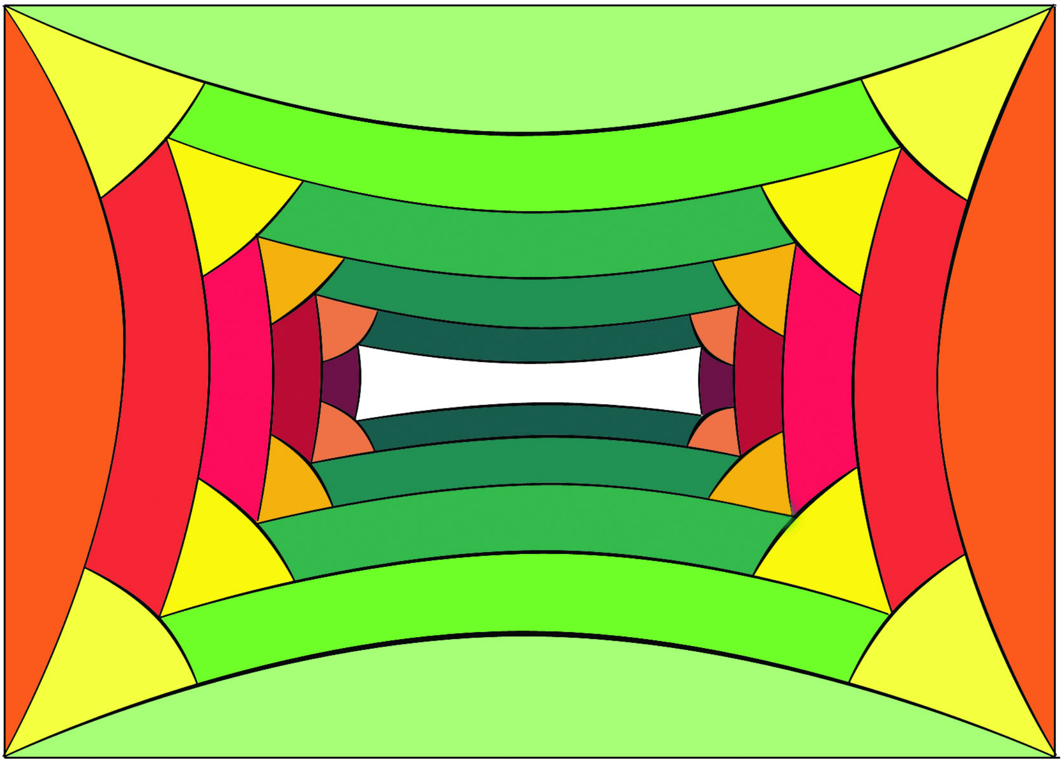
환경을 문화적으로 꾸리거나 제품을 아름답게 만들자면 구성에 대한 지식기능이 있어야 한다.

투영도법을 응용하거나 색의 성질과 기능을 잘 리용하면 립체감이 나는 평면구성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 또한 형태와 표현방법을 약간만 바꾸어놓아도 묘한 립체감, 공간감을 표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립체감이 나는 평면구성에서는 형태와 색, 기법을 잘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수학


평행투영
투시투영
사투시
등각투시
한점투시
두점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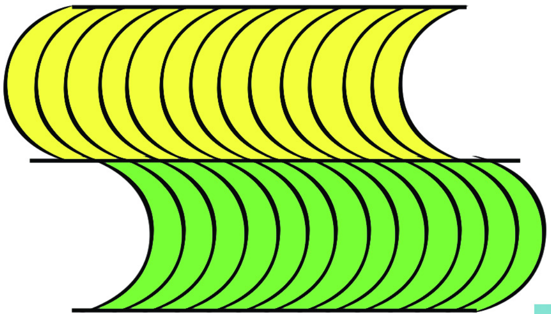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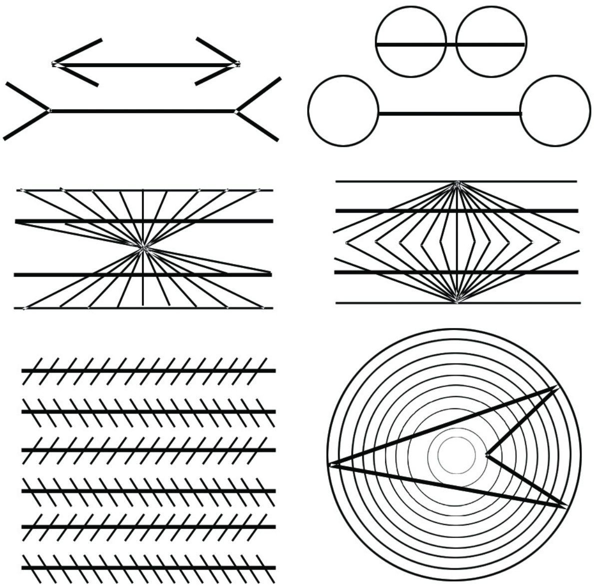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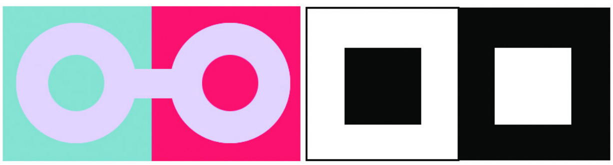
착시

어떤 도형을 볼 때 그 크기, 방향 등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착시라고 한다. 이런 착시현상은 형태에서도 색의 대비에서도 일어난다.

미술에서는 이러한 착시현상을 여러가지로 리용한다.







립체도안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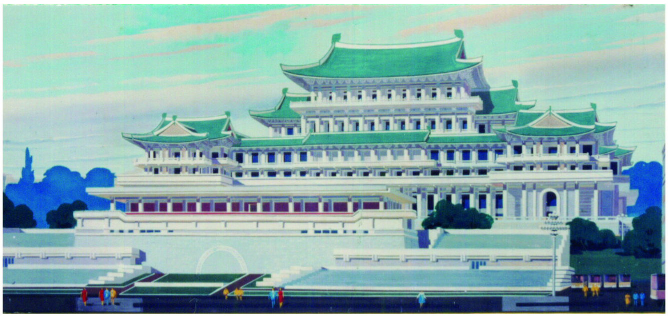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여러가지 물건이나 자동차, 뜨락또르, 선박 등의 운수기재들 그리고 건축물의 도안과 같은 립체도안에서는 대상의 쓸모와 함께 미를 잘 보장하여야 한다.

도안에서는 제품의 제작과 사용의 합리성, 경제적효과성도 타산하여야 한다.

건축물도안

건축물의 형성안은 평면으로 할수도 있고 립체로도 할수 있다.

○ 인민대학습당형성도안



정면도안

측면도안



건축물도안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다. 도안은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다소 변경된다.





○ 5월1일경기장도안

운수기재도안

○ 방송차도안



○ 차갈이전기기관차도안



생활필수품도안





공 예

도자기

도자기는 흙으로 모양을 빚고 불에 구워내여 만든다.
형태, 색갈, 장식은 도자기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기본요소로 된다.



꽃모양붓통

도자기 만드는 공정

진흙을 잘 이겨서 형태를 만든다.

그늘에서 잘 말리운다.

초벌구이를 한다.

유약을 바른다.

재벌구이를 한다.

도자기흙이기기

① 두손바닥으로 비벼서 작은 흙덩이들을 하나로 만든다.
② 두손에 힘을 주어 반죽한다. 늘이기와 모으기를 반복하여 고루 이긴다.
③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흙속의 공기를 말끔히 뽑아낸다.

①



②



③





두칸 낮은 네모그릇



꽃무늬투각필통

(1977년)

홍성민 작

판으로 만들기방법

①



흙덩이의 량옆에 긴 나무 막대기를 놓고 가는 쇠줄을 당겨 잘라서 흙판을 만든다.

②



흙판에 본을 놓고 칼로 잘라내여 차례로 놓는다.

③



칼로 이음면에 자리를 내고 붓으로 흙물을 바른다.

④



밑판에 옆판을 세워 붙인 다음 안쪽 모서리에 흙오리를 대고 손가락으로 눌러 붙인다.



개구리모양연적

《개구리모양연적》은 먹을 갈 때 물그릇으로 쓰는 도자기이다. 흙으로 형태를 빚은 다음 속파내기방법을 적용하여 만들었다.



박모양단지(1985년) 김기룡 작

도자기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들에서는 주입식으로 형태를 만든다. 실례로 박모양단지를 들수 있다.

속 파내여 만들기

①



가는 쇠줄이나 실로 허리를 자른다.

②



속을 파낸다.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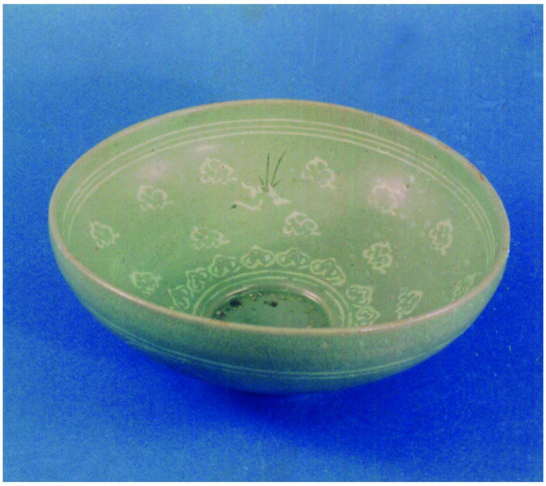


자른 면에 붓으로 흙물을 바르고 두 부분을 잇는다.



오지단지

《오지단지》는 타래쌓기방법으로 만들었다.



구름무늬박이 푸른 대접



돌림판의 리용

도자기를 만들 때에는 일반적으로 돌림판을 리용하여 형태를 빚는다.

타래쌓기방법으로 만들기

①



전체 모양을 생각하면서 밑부분부터 만든다.

②



밑판에 흙타래를 감아 쌓아올린다.

③



일정하게 쌓은 다음 막대기로 눌러주면서 면을 깨끗이 정리한다.

돌공예에 대한 지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리석과 옥돌, 보석공예품은 창작가가 한점한점 쪼아가며 다듬어 완성하는 매우 탐스러운 예술품이다.》

돌공예는 여러가지 돌로 생활도구들과 치레거리들을 만드는 공예의 한 분야이다.

돌공예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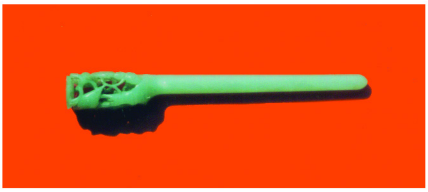
국화(1965년) 장경시 작



꿀단지(1980년) 리길화 작

국화장식고리단지(1985년) 조서해 작





옥비녀(18세기)





김일성화무늬꽃병(1979년) 박길범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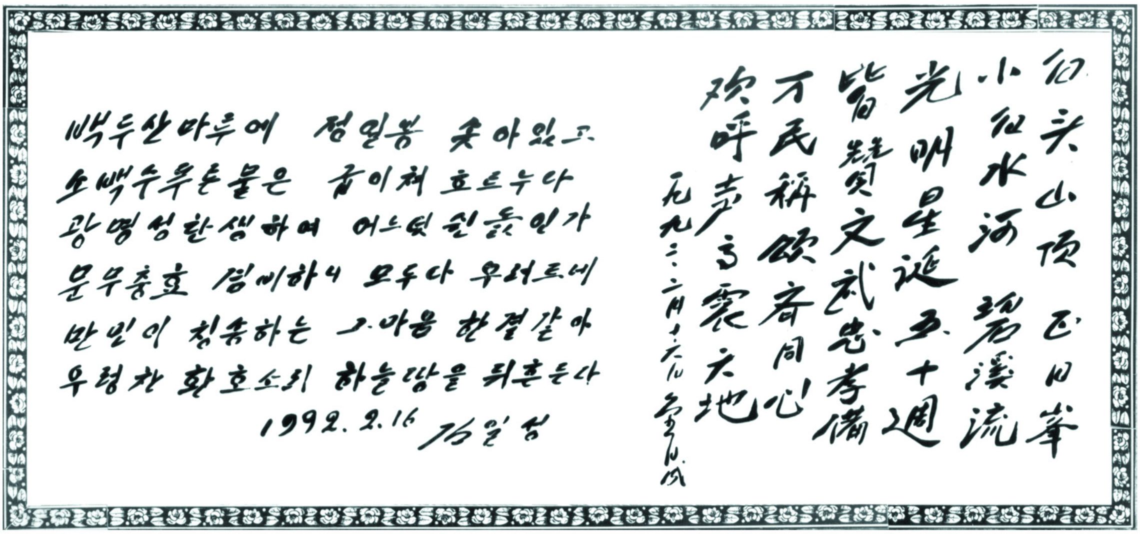


금강무늬꽃병(1980년) 김사철 작

적진을 뚫고(1979년) 김도을 작



서 예



태양서체 《광명성찬가》

서예는 뜻과 획의 예술이다. 뜻은 있어도 감정이 없고 필력에 의한 감정은 있으나 뜻이 없으면 서예라고 할수 없다.

서예는 뜻을 중시하고 획의 필치에서 사상감정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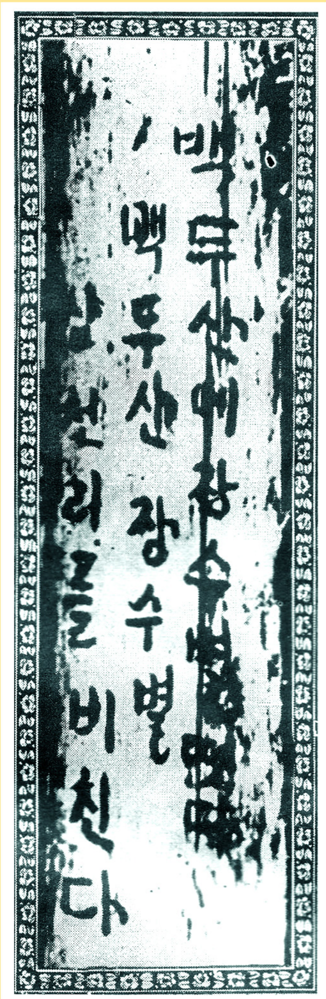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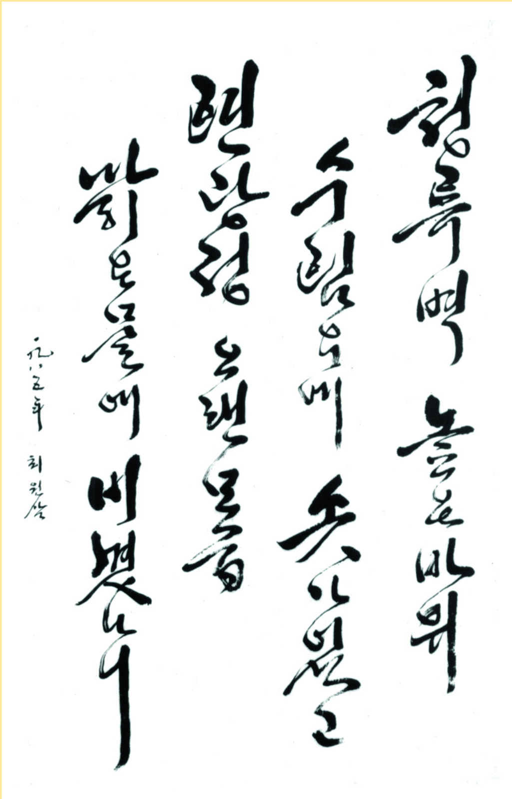
백두산서체 혁명렬사릉현판



해발서체



(최원삼 작)



글자의 뜻과 획이 어떻게 어울렸는가.

감 상

창작가는 자신의 사상감정을 작품에 담아 표현한다. 그러므로 모든 미술작품에는 미술가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작품감상에서는 창작가가 말하려는 사상감정을 잘 찾아보는것이 중요하다.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조선화)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조선화 1958년) 정종여 작



작품의 초안



고성인민들의 전선원호(부분)

화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

소를 모는 주인공의 모습에서는 물론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는 소의 형상을 통해서도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가 느껴진다.

조용히 작품을 보느라면 눈보라속에 감싸여 어슴푸레 사라졌다가 나타나군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작품은 몰골기법으로 그렸다. 등장인물들과 소, 말, 나무가지를 몇번의 붓질로 생동하게 그렸으며 배경을 얼마 그리지 않았지만 눈보라 세찬 겨울날씨를 느끼게 한다.

《포항의 8용사》(조선화)



포항의 8용사(조선화 1997년) 리동건, 고수진, 김수동, 안명일 작

인민군용사들은 죽음앞에서도 서슴없이 한목숨을 내대여 고지를 지켜냈다. 이러한 대중적영웅주의, 자기희생정신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깔려있는가? 전투의 어느 순간인가? 전장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였는가? 영웅전사들의 하나하나의 형상을 이야기하여보시오.



《남강마을의 녀성들》에서는 녀성들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한손에 총을 잡고 식량증산에 떨쳐나서 희생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하였다.

남강마을의 녀성들
(조선화 1966년) 김의관 작



조국해방전쟁시기 가렬한 락동강 전투를 판화로 형상한 이 작품에서 화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오.

불타는 락동강(판화 1997년)
김선남, 김익현 작

미술사주요자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우수한 미술유산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 하며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더불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으며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수많이 남기였다. 그가운데서 미술유산은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 고조선시기

사진 2는 고조선시기의것이다. 고조선의 금속공예는 고대금속문화를 대표한다. 비파형단검 2나 창, 잔줄무늬거울 등은 고조선인민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은근한 성격적특질을 엿보게 한다.

□ 세나라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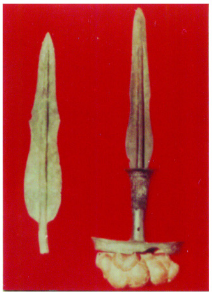
발전된 고구려문화를 보여주는 《청룡》 3은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의 강서세무덤벽화 《사신도》중의 하나이다. 이 무덤벽화는 동방 여러 나라들에 남아있는 옛 무덤벽화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사신도》에 그려진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환상적인 《신》의 모습이지만 풍부한 상상력에 감동되게 한다. 벽화에는 고유하고 우수한 조선화기법이 잘 반영되여있고 그린 수준이 뛰여난것으로 하여 세계회화사를 빛나게 장식한다. 고구려무덤벽화는 고대동방의 강성대국인 고구려인민들의 진취적이고 용감한 기상이 잘 반영되여있다.

고구려의 발전된 미술문화는 이웃나라인 신라와 백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진 4는

1



2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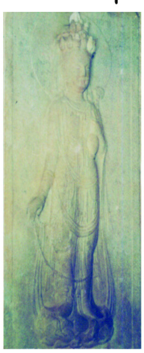
4



5



7



1. **녀인상**(기원전 모계씨족사회)
2. **비파형단검**(고조선)
3. **청룡**(강서세무덤벽화)
4. **금관**(신라 5~6세기)
5. **산경치무늬벽돌**(백제)
6. **돌등**(발해 8세기 중엽)
7. **석굴암부각**(후기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금관무덤에서 나온 금관이다. 고구려의 불꽃모양뚫음무늬판을 비롯한 금동장식품들과 함께 세나라시기의 귀금속공예의 높은 수준과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솜씨를 잘 보여준다. 사진 5는 백제의 산경치무늬벽돌이다. 백제의 미술유물들에서는 무늬벽돌이 유명하다. 무늬벽돌은 백제의 기와, 벽돌공예의 높은 수준만이 아니라 유물로 남아있지 않는 회화의 발전모습도 엿보게 한다.

□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사진 6은 고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으로 이름 떨쳤던 발해의 돌등이다. 발해는 건축유물들과 함께 자기유물이 유명하다. 고구려자기기술을 계승한 발해자기는 유명하여 주변나라에까지 널리 수출되였다.

사진 7은 신라의 경주에 있는 불국사의 부속굴인 석굴암조각의 하나인데 11면관음상이라 한다. 40여개의 부각이 있는데 이것만이 정면으로 향한 자세이다. 매우 굳은 화강석을 다듬어 부드러운 살결과 바람에 날리는 가벼운 옷의 느낌을 나타낸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 고려시기

사진 8, 9는 고려의 미술유산이다.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미술에서는 여러 부문을 다 자랑할수 있으나 우선 세상사람들이 누구나 경탄하여 부러워하는 고려자기를 들수 있다. 고려자기라 하면 비색상감자기를 들게 되는데 그밖에도 백자기, 진사자기, 분장자기 등 종류가 많다. 특히 비색상감자기는 고려자기를 대표한다. 고려자기는 그 아름다운 색갈과 다양한 형태, 은은한 장식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긴다.

9



10



11



12



8



13



14



15



8. 고려비색상감자기(12세기)
9. 라옹화상(고려)
10. 룡(조선화 12세기) 안견 작
11. 가지(조선화 16세기)
12. 나무에 오르는 고양이(조선화 16세기) 리암 작
13. 리조백자청화자기(15~16세기)
14. 대동문(리조 17세기)
15. 룡을 낚는 사람(조선화)

《라옹화상》 9는 정밀하고 섬세한 먹선으로 형태를 그린 다음 화려하게 색칠했는데 째인 구도와 세련된 선, 조화로운 채색법으로 고려회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 리조시기

사진 10부터 19까지는 리조시기의 회화, 공예, 건축유물들이다. 리조시기 미술을 든다면 우선 회화를 꼽을수 있다. 리조시기 조선화는 종류와 기법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는데 세 시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첫째 시기(15~16세기)는 민족적풍격이 보다 짙어진 시기이다. 대표적인 화가들로는 안견, 리상좌와 그뒤를 이어 동물화를 잘 그린 리암, 중세 우리 나라의 유일한 녀류화가 신사임당을 들수 있다. 둘째 시기(17~19세기 초)는 18세기에 이르러 현실생활을 진실하게 그린 사실주의회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는 풍속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그중 《경직도》가 유명하다. 18세기 후반기의 유명한 풍속화가로는 김두량, 김득신, 신윤복과 중세 우리 나라의 으뜸가는 화가 김홍도 등이다. 풍경화에서는 정선이나 리인문과 같은 우수한 화가들을 들수 있다. 18세기 또는 리조시기 3대화가라고 하면 김홍도, 신윤복, 정선을 꼽는다. 셋째 시기는 리조말기인데 화가대렬도 늘어나고 화법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그려진 진채세화 《모란과 닭》, 《련꽃과 물새》는 조선화의 채색화발전에서 하나의 좋은 참고품으로 되고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김진우, 남계우, 장승업, 리도영, 조석진 등을 들수 있다. 리조청화자기는 젖빛나는 부드러운 흰색바탕에 청색무늬를 그려 그 특색을 나타내고있다. 사진 14는 17세기에 건설한 대동문으로서 우리 나라 민족건축의 특성을 뚜렷이 한 건축유산들중의 하나이다.

16



19



20



22



17



18



21



23



16. 씨름(조선화) 김홍도 작
17. 문암(조선화) 정선 작
18. 단오놀이(조선화) 신윤복 작
19. 련꽃과 물새(조선화) 장승업 작
20. 사령부의 불빛(판화)
21. 새해를 더욱 빛나는 승리로써!(선전화) 정관철 작
22.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선전화) 곽흥모 작
23. 천리마동상(조각)

□ 항일혁명투쟁시기 미술

사진 20은 항일혁명투쟁시기 미술작품이다. 이 시기 작품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형식에서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창작됨으로써 대중을 궐기시키는데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 항일혁명미술은 우리 미술건설과 발전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있다.

□ 해방후 우리 나라 미술

사진 21부터 29까지는 우리 나라 현대의 우수한 작품들중 극히 일부이다.

우리 나라 현대미술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학예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주체미술의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 시기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반영한 기념비미술이 대대적으로 창조되였다. 작품으로서는 《만수대기념비》, 《삼지연기념비》, 《주체사상탑》, 《개선문》, 《당창건기념탑》, 평양지하철도벽화, 전경화, 반경화 등 수많은 혁명적대작들을 들수 있다. 또한 조선화를 비롯한 회화, 조각, 우리 식 무대미술, 건축 등 미술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 걸쳐 수많은 명작들이 창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미술론》**은 우리 미술발전의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우리의 미술은 앞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미술의 본보기로서 더 활짝 꽃필것이다.

24



26



28



25



27



29



24. 수령님 이밤도 어데 가시옵니까(유화) 신영기 작

25. 강선의 저녁노을(조선화) 정영만 작

26. 조선의 별 우러러(조선화) 황병호 작

27. 우리 로의 막내아들(유화) 김정중 작

28. 진격의 나팔수(조각)

29. 개선문(건축)

미술 (중학교 제3학년용)

제3판

집 필 부교수 김성호, 부교수 리국진, 박기서, 홍파, 장영남, 김병오, 안영수, 송춘화, 리건일, 고용국, 리용태

심 사 심의위원회

편집 및 콤퓨터편성 리영환

장 정 류명심

교 정 리분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0(2001)년 8월 20일

3판인쇄 주체100(2011)년 12월 16일

3판발행 주체100(2011)년 12월 26일

교 — 11 — 보 — 533

값 20 원